

2019년 3.1운동 범국민대회 “시민사회와 연합하겠다”

3.1운동 100주년 범국민대회 준비 회의 종로 태화관에서

내년 2019년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해, 한국교회총연합회가 주도하는 범국민대회 준비 회의가 13일 오전 7시 종로 태화관에서 열렸다. 종로 태화관은 3.1운동을 앞두고 민족대표 33인이 기미독립선언서를 낭독했던 곳이다. 제 28대 기감 김득회장 겸 3.1운동 100주년 위원회장 전명구 감독 사회로 진행된 이번 3.1운동 기념대회 준비 회의는 1부 예배 및 2부 회무 순서로 진행됐다. 1부 예배는 김성복 한교총 연합회장이 시편 133:1-3을 놓고 설교를 전했다.

그는 “일본 국가는 천황 중심”이라며 “그러나 한국의 정신은 애국가에서 드러났듯 ‘하나님이 보우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연합은 외형적·물리적으로 이뤄져서는 안 된다”며 “교세를 부풀리는 연합은 문제가 발생되기 마련”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그는 “연합은 머리에서부터 이뤄져야 하는데 곧 성령, 한 믿음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애베소서는 성령의 하나 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했다”며 “교회의 머리는 예수며, 연합 활동을 하고 3.1 기념사업을 하는 모든 일은 머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권한다”고 전했다. 이를 놓고 그는 앱 4:3을 인용했다. 다음과 같다.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엡 4:3)

이어 그는 “하나님 나라 연합 운동은 성령의 기름을 받아서 해야 한다”며 “또 인정과 배려가 있는 연합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작은 지체가 요긴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군소 교단들이 들리기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연합에 동참하고 있다는 마음으로 참석하기를 바란다”며 “모두가 동참할 때 작은 자들이 소외받지 않고 큰 자들이 위세를 부리지 않게 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그는 “교단 실무를 담당하는 사무총장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며 “이들은 바른 신앙을 가지고 한국교회를 위해 헌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그는 “베드로 후서 5:3은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고 하신다’”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으로 실무에 임하면 하나님께 반드시 영광 받으실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 무리의 본이 되라”(벧후 5:3)

제2부는 회무 순서가 이어졌다. 변창배 예장 통합 사무총장은 3.1운동 100년 범국민대회를 간략히 소개했다. 그는 “2019년 3월 1일 정오부터 오후 4시까지, 광화문광장에서 약 30만명 참가 인원을 예상하여 3.1운동 100주년 범국민대회를 열 것”이라며 “7대 종단이 참여하는데, 기독교 측은 한교총과 NCCK가 참석한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그는 “각 시민단체 노동운동계, 여성계 등이 참여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만일 범국민대회가 어려울 경우, 교회가 독자적으로 3.1운동 100년 한국교회 연합성회를 따로 개최할 것”이라며 “그러나 무엇보다 국민 통합 차원에서 함께한다는 명분을 앞세우고 교회 색깔을 드러내되, 연합 정신에 최대한 동참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유로, 그는 “교회가 따로 하겠다면 외부적으로 이미지가 안 좋게 보일 수 있기 때문”이라며 “안하는 마음으로 100년 한국교회 연합성회를 차선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에 의하면, 내년도 3월 1일 동일한 날짜에 개최하되, 장소를 달리해 서울시청 광장에서 참가인원은 약 2만 명을 예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한교총 및 연합 단체와 기관 등이 주최하며, 찬양제 및 3.1운동 기념 연설과 선언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 앞선 두 대회와 달리, 3.1 운동 예배를 2019년 3월 1일 유관순 기념관에서 교회 행사로 개최할 것으로 변 사무총장은 밝혔다. 평통연대가 참여하며, NCCK와 한교총이 연대해 주최한다. 아울러 3.1운동 100주년 기념 창작 오페라인 ‘3.1운동’을 KBS홀에서 2019년 2월 26일부터 3월 3일까지 공연할 예정이다. 사단법인 고려오례판단이 주최한다. 문성모 목사가 각본을 짜고 박재훈 작곡가가 오페라 가곡을 담당한다. 한국교회총연합회,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가 후원한다.

의미심장한 행사로 기미독립선언서를 발표했던 2019년 2월 8일 날에 독립 선언 10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할 예정이



“3.1정신을 다시”

내년 2019년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해 한국교회총연합회가 주도하는 범국민대회 준비 회의가 13일 종로 태화관에서 열렸다. 태화관은 3.1운동을 앞두고 민족대표 33인이 기미독립선언서를 낭독했던 의미가 있는 곳이다. 회의를 마치고 태화관 앞에서 화이팅을 외치고 있는 교단장들과 총무, 관계자들의 모습. © 노형구 기자

동 기념 예배를 2019년 3월 1일 유관순 기념관에서 교회 행사로 개최할 것으로 변 사무총장은 밝혔다. 평통연대가 참여하며, NCCK와 한교총이 연대해 주최한다. 아울러 3.1운동 100주년 기념 창작 오페라인 ‘3.1운동’을 KBS홀에서 2019년 2월 26일부터 3월 3일까지 공연할 예정이다. 사단법인 고려오례판단이 주최한다. 문성모 목사가 각본을 짜고 박재훈 작곡가가 오페라 가곡을 담당한다. 한국교회총연합회,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가 후원한다.

의미심장한 행사로 기미독립선언서를 발표했던 2019년 2월 8일 날에 독립

다. 변 사무총장은 “2019년 2월 8일 동경 YMCA에서 개최할 계획이지만 현재 자리 얻는 게 힘들다”고 밝혔다. 덧붙여 한교총 연합회장 김상복 목사는 “기미독립선언서는 나라의 주권을 잃어서는 안 되겠다는 의미에서 선언된 것”이라며 “우리 기독교인들이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담은 소중한 낭독 선언문”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단순히 반일(反日) 감정이 아니라 ‘왜 우리는 나라를 잃어버렸나’를 생각하며, 나라의 소중한 학제적 정신의 당위성을 부각시키는 차원의 행사가 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어떻게든 나라의 주권을 잃어버리면 안 되겠다는 절실히 들어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다음 예정이다. 다만 범국민대회 때 교회가 참여할 때 사람들에게 거부감이 안 들도록, 또 교회가 소홀하지 않도록 조절해서 보고하겠다”고 전했다. 또 그는 “2019년 2월 24일에 열릴 3.1운동 100주년 기념 한국교회 공동예배에서 공동설교문 및 대표기도문을 작성할 때, 보수진영이나 진보 진영이나 서로 부딪히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신평식 한교총 사무총장은 “2019년 3월 1일 범국민대회는 기독교 고유의 색깔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회단체, 종단들과 함께하는 차원으로 범국민대회를

열 예정”이라며 “다만 범국민대회 때 교회가 참여할 때 사람들에게 거부감이 안 들도록 조절해서 보고 하겠다”고 전했다. 또 그는 “2019년 2월 24일에 열릴 3.1운동 100주년 기념 한국교회 공동예배에서 공동설교문 및 대표기도문을 작성할 때, 보수진영이나 진보 진영이나 서로 부딪히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자기 회의는 내년 1월 7일 오전 11시 한교총 신년하례회가 끝난 후 열릴 것”을 제안했다. 회무에 참석한 위원들의 동의, 제청으로 차기 회의는 2019년 1월 7일에 확정됐다. 노형구 기자

“화합·연합·통합을 통해 동질·동행·동거를 추구”

한기연 제8대 대표회장 권태진 목사 취임예배

한국기독교연합 제8대 대표회장에 권태진 목사(군포제일교회)가 취임했다.

한국기독교연합은 지난 12월 13일 오후 2시 한국기독교연합회관 3층 대강당에서 교계 정관계, 언론인 등 4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8대 대표회장 권태진 목사 취임 감사예배를 드리고 한국교회 일치와 섬김 사역에 더욱 매진할 것을 다짐했다.

1부 예배는 김효종 목사(공동회장)의 사회로 박만수 목사(공동회장)의 기도와 서기 김병근 목사의 성경봉독, 군포제일교회 찬양대의 찬양, 원팔연 목사(전주 바울교회 원로)의 설교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안태준 목사(공동회장), “한국교회와 세계복음화를 위해” 흥주종 목사(공동회장), “한국기독교연합의 회원교단과 단체를 위해” 박남수 목사(공동회장), “대표회장 및 임의원을 위해” 유안근 목사(공동회장) 특별기도한 후 김윤기 목사(명예회장)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원활한 목사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요21:15~17) 제하의 설교에서 “위기에 빠진 한국교회를 영적으로 구할 지도자는 나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겸손한 사람, 성도들을 천국의 소망으로 인도하는 사람,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며 “한국기독교연합에 소속된 성도들이 진심으로 축하드린다”고 말하고 “현재 대한민국은 경제 불황과 국내의 어려운 안보상황에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 하고 있다”며 “한국기독교연합에 소속된 성도들이 지금보다 더 나은 대한민국, 더 따뜻한 사회로 국민들이 행복해 질 수 있도록 많은 기도를 부탁드린다”고 축사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권태진 목사님은 일찍이 사회복지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어려운 이웃을 돋는 일에 앞장서 오셨고, 대한민국 사회복지 발전을 위해서도 큰 기여를 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고 “그런 면에서 우리 사회에 어렵고 악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아보고 정의를 위해 바른 소리를 할 수 있는 권태진 회장님을 비롯해 한국기독교연합의 활동이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도 “권태진 목사님은 목회자로서, 사회복지사업가로서 일찍이 지역과 사회의 복지에 앞장서 오셨고 이제 한국기독교연합 대표회장으로서 우리나라 정부와의 협력과 소통을 통해 많은 역할을 감당하실 것으로 기대한다”며 “한기연이 한국교회 성도들에게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이웃에게는 한 형제로서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며 정부와 함께 건강하고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축사했다.

또한 바른미래당 이해훈 의원도 국회 일정으로 먼저 자리를 뜨게 돼 미안하다며 “대표회장으로 취임하는 권태진 목사님이 한국교회를 위해 주님의 크게 사용하실 것”이라며 “한기연이 권태진 목사님의 리더십으로 나라와 민족과 사회를 위해 크게 쓰임받는 기관으로 발전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축사를 전했다.

축사순서에 이어 팝페라 가수 김민석 전도사의 축가가 있는 후 각계의 취임축하와 꽃다발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표회장 권태진 목사는 “부족한 사람을 한국기독교연합 대표회장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하고 “한국교회 화합과 연합, 통합 3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들의 노력 덕분에 한국기독교

교연 대표회장의 직책을 맡게 됐다”며,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교회를 보지 말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위축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화합, 연합, 통합은 동질, 동행, 동거로 가야한다. 기독교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한기총, 한교총, 한기연 다 하나다. 동질성 회복 운동을 벌이겠다”면서, “같이 일하고 그리고 동거해야 한다. 떠밀려 동행도 안하고 동거부터 하는 것은 다툼이 일어난다”고 역설했다.

더불어 “골리앗 앞에 나간 다윗처럼 초라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면 우리가 승리할 것으로 믿는다”면서, 회원 교단장 및 종무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기도를 바랐다.

대표회장 권태진 목사는 종무협의회 회장 김명찬 목사와 4대 대표회장 양병희 목사, 직전 대표회장 이동석 목사, 설교자 원팔연 목사, 사무총장 최귀수 목사 등을 일일이 호명해 자신이 받은 꽃다발을 안겨주는 훈훈한 장면을 연출하며 협조를 요청해 박수를 받았다.

이어 대표회장 권태진 목사가 제8회기 임원과 상임위원장, 특별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으며, 기획홍보실장 김훈 장로가 내빈을 소개하고 꽁고를 전한 후 꽁제은 목사의 마침기도로 마무리했다.

이날 축하예식에 문재인 대통령, 이낙연 국무총리, 문화체육관광부 도종환 장관,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민갑룡 경찰청장, 서울경찰청 원경환 신임 청장이 화환과 난파분을 보내왔으며, 교계에서는 국동방송 이사장 김장한 목사, 비로해 다수가 화환과 화분, 쌀화환을 보내왔다.

한편 제8대 대표회장 권태진 목사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 제9회 총회장을 역임했으며,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목회학 박사, 루이지애나 램피스트대 명예철학박사,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 명예신학박사이다.

한장총 제30회 대표회장, 성신클럽 제18대 회장, 군포시시도교연합회장을 역임했으며, 사단법인 성민원 이사장, 경기복지뉴스 발행인, 한국교회 종교교인과세 대책 TF팀 위원장, 한기연 상임회장과 한국교회 통합주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해 왔으며, 군포제일교회를 개척해 만40년간 시무해 왔다.

박용국 기자

“비정규직 노동자 죽음의 행렬 멈추라”

최근 대안회학 밭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의 죽음과 관련, 비정규직 대체
한국교회연대(대표 남재영 목사, 이하
비정규직대책연대)가 “그의 죽음의 근본

원인은 자본주의 이윤실현을 위한 위협의 외주화에 있다”며 “비정규직 노동자 죽음의 행렬을 멈춰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비정규직대책연대, 故 김용균 씨의 죽음과 관련 성명 발표

비정규직노동자의 죽음의 행렬을 멈출 수 있는 근본 대책으로 비정규직 제도를 철폐하라 ▶국회는 위험의 외주화를 균질화하고 원청 기업에 분명한 책임을 지우는 법

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비정규직대책연대는 비정규직 고용형태에 대한 문제점 분석과 정책 대안 모색, 노동시장에 대한 한국교회의 선교

과제 제시와 실천운동의 확산, 양극화, 경제정의 등의 사회·경제적 문제에 대한 신학적 성찰, 시민사회 및 해외교회와의 협력을 통한 다양한 대안 모색을 목적으로 NCCK를 비롯한 교단과 교계의 주체를 구성하여 2015년 11월 3일에 발족해 활동 중이다.

▶성명전문3면/박용국 기자

고난과 슬픔과 아픔의 유익과 축복 (시 119:71, 전 7:3, 마 5:4,11,12, 고후 12:8-10)



감변교회
김명혁 원로목사

제가 오전 11시 예배 때는 “울바른 삶과 올바른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는데 지금 오후 2시 예배 때는 “고난과 슬픔과 아픔의 유익과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안상진 목사님이 “고난과 영광”에 대한 설교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고난과 슬픔과 아픔의 유익과 축복”이라는 좀 긴 제목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영광”이라는 말 보다는 “유익과 축복”이라는 말이 보다 겸손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고난도 슬픔도 아픔”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고난과 슬픔과 아픔”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것이지만 유익한 것이고 귀중한 것이고 보배로운 것이고 축복이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왜 “고난과 슬픔과 아픔”이 유익한 것입니까? 성자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 예수님의 몸과 마음과 얼굴과 손과 발과 옆구리에 “고난과 슬픔과 아픔”의 흔적이 가득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의 몸과 마음과 가슴에도 “고난과 슬픔과 아픔”的 흔적이 가득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자 예수님께서는 “고난과 슬픔과 아픔”을 당하시면서 우셨고 고난과 슬픔과 아픔을 당하는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이 망할 것을 바라보시면서 우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누이들과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면서 우셨습니다. 캐시미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통곡하시면서 우셨습니다. 이사야 53장은 메시야 예수님에게 “고난과 슬픔과 아픔”이 가득할 것을 미리 예언했습니다.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찔립은 우리의 힘들은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사 53:5).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들인 사도 바울에게도 성 프랜시스에게도 이기풍 목사님에게도 죄권능 목사님에게도 주기철 목사님에게도 이성봉 목사님에게도 손양원 목사님에게도 한경직 목사님에게도 정기려 박사님에게도 “고난과 슬픔과 아픔”이 가득했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하고 또 부족한 우리들이 주님과 누군가를 위해서 “고난과 슬픔과 아픔”을 우리들의 몸과 삶에 조급이라도 아주 조금이라도 지닌다면 예수님을 조급은

아주 조급은 달을 수 있고 사도 바울을 조급은 아주 조급은 달을 수 있고 성 프랜시스와 이기풍 목사님과 죄권능 목사님과 주기철 목사님과 이성봉 목사님과 손양원 목사님과 한경직 목사님과 장기려 박사님을 조급은 아주 조급은 달을 수 있지 아니할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들은 무의식 중에 장수와 부귀영화를 추구하는데 장기려 박사님은 부귀영화나 고종건물이나 고종 예배당을 보면 하나님의 축복이리 보다는 마귀가 가져다 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약함과 가난과 고난과 슬픔과 아픔”을 몸과 삶에 짊어지는 것은 예수님에게로 조급은 아주 조급은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랐던 신앙의 선배님들에게로 조급은 아주 조급은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한경직 목사님은 15편의 작은 집에서 20년 동안 가난하게 “고난과 슬픔과 아픔”을 몸과 삶에 짊어지고 사셨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 가서 3일 동안 집회를 인도하면서 가난과 고난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 그 교회 성도 한 분이 저에게 편지를 써서 보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이런 다짐을 했다고 편지를 써서 보았습니다. “목사님, 우리도 한 평생 삶은 집에서 욕심 부리지 말고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많은 것이 생기거든 구제하고 선교하고 사랑하는데 쓰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나아 들어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기를 바랍니다.” 아주 귀중하고 아주 아름다운 다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고난과 슬픔과 아픔의 유익과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합니다.

첫째로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마 사도 바울만큼 예수님을 따라서 “고난과 슬픔과 아픔”을 많이 당한 사람도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그가 기술한 고난의 리스트는 아주 길고 다양합니다. 고후 11:23절 이하에서 이렇게 길게 기술했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때로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 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사십에 하나 감한 매를 다섯 번 맞았으며 세 번 태장으로 맞고 한번 돌로 맞고 세 번 파선하는데 일주장을 깊음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고후 11:23-27). 고후 12장에 와서는 자기가 당한 “고난과 슬픔과 아픔과 좌절”的 이야기를 기술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이 불치의 병에 걸려서

“고난과 슬픔과 아픔”을 당하고 있을 때 “고난과 슬픔과 아픔”을 제해 달라고 주님께 세 번 간구하며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간구와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다고 기술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손수건을 대기만 해도 불치의 병들이 물려가곤 했는데 자기의 병을 위해서 세 번 간구했는데도 주님께서는 자기의 병을 고쳐주지 않았다고 기술했습니다. 아마 처음에는 사도 바울이 실망을 하고 당황을 하며 슬픔과 아픔과 좌절에 빠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고후 12:9). 여기 “약함”은 질병의 “고난과 슬픔과 아픔”을 의미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그 말씀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했고 받아드리지도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과 자기의 불치의 병들을 척척 고쳐야 하나님의 능력이 멋지게 나타날 수 있을 텐데 왜 주님께서 그러실까? 좀 못마땅한 생각과 불만을 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음 순간 사도 바울은 주님의 깊은 뜻을 깨닫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너무 자고 해지고 교만해져서 사탄의 노리개 깨이 되지 않게 하시기 위한 주님의 특별한 배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능력을 행하다가 대단한 성공을 행취하다가 실패하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삼손이 그랬고 솔로몬이 그랬고 엘리야도 그랬을 뻔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술했습니다.

고후 12:7을 읽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 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 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고후 12:7). 참으로 신기한 고백이었습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나타난 그리고 자기 몸에 지닌 “약함과 고난과 슬픔과 아픔”的 예찬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을 위하여 자랑하고자 했던 고백을 했습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 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펑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에 곧 강함이니라”(고후 12:9,10).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고난과 슬픔과 아픔”은 너무나 유익한 너무나 아름다운 보석이 되었습니다.

둘째로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사도 바울이 로마 옥에 갇혀서 죄수의 생활을 하고 있을 때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보낸 위로와 격려와 사랑의 사절이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성품이 따뜻하고 현신적인 사랑의 사람임이었을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던 사도 바울을 찾아와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사랑의 선물을 전달했고 그리고 그 곳에 남아 있으면서 사랑과 섬김의 일을 정성을 다해서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너

러하나라 이 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갈 6:14,17).

오늘날 한국교회에 성공한 목회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공한 목회자치고 자고 하지 않는 사람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성공은 실패의 어머니라”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성공할 때 사람들은 자만해져서 인간의 영에 자비를 받다가 나중에는 자신의 영에 자비를 받게 됩니다. 베드로가 그런 위험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지나가 된 불치의 병을 인해서 기뻐하며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약함과 능욕과 궁핍과 슬픔과 아픔과 곤란”을 기뻐하며 자랑한다고 고백하게까지 되었습니다. 자기가 “약함과 고난과 슬픔과 아픔”을 당할 때 주님께서 당하신 “약함과 고난과 슬픔과 아픔”에 조급이라도 참여하게 된다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약함과 능욕과 궁핍과 슬픔과 아픔과 곤란”을 기뻐하며 자랑할 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기에게 더욱 더 충만하게 나타나는 것을 체험하고 또 체험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성 프랜시스도 한경직 목사님도 이중표 목사님도 몸에 육체의 기시를 지니고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능력을 강하게 나타내면서 살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의 역설적인 고백에 다시 귀를 기울여보시기 바랍니다. 현대 한국교회가 삶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에바브로디도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했을 것이고 그렇게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했을 것이고 빌립보교회 성도들은 자신들 때문에 기뻐하며 감사했을 것입니다. 빌립보서 9장에 “기쁨”이라는 말이 17번이나 나옵니다. 에바브로디도가 당했던 “고난과 슬픔과 아픔”은 너무나 유익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기쁨의 보석이 되었습니다.

셋째로 사도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마 사도 베드로만큼 “고난과 슬픔과 아픔”을 싫어한 사람도 별로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조만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정식으로 반대를 했던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불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마”(마 16:22).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책망하시면서 자기를 따르라는 사랑은 십자가의 “고난과 슬픔과 아픔”을 지고 그리고 죽을 각오를 하고 자기를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 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죽을 것이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마 16:23-25).

베드로는 수 많은 실패와 좌절을 거친 다음, 디비라 바다가에 나타나신 부활의 주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통곡하면서 회개한 다음부터, 앞으로는 팔을 벌리고 자기가 원치 않는 죽음의 길로 가게 될 것

가 기쁨에 쌓이게 되었고 사도 바울이 기쁨에 쌓이게 되었고 빌립보교회가 기쁨에 쌓이게 되었습니다. “저가 병들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저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저를 보낸 것은 너희로 저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할이나 이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저를 염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저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할이니라”(빌 2:27-30).

얼마 후 에바브로디도가 건강한 모습으로 빌립보교회로 돌아갔을 때 빌립보교회 성도들은 기쁨과 감사의 축제를 열었습니다. 죽을 병에 걸리도록 수고한 에바브로디도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했을 것이고 그렇게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했을 것입니다. 빌립보교회 성도들은 자신들 때문에 기뻐하며 감사했을 것입니다. 빌립보서 9장에 “기쁨”이라는 말이 17번이나 나옵니다. 에바브로디도가 당했던 “고난과 슬픔과 아픔”은 너무나 유익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기쁨의 보석이 되었습니다.

셋째로 사도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마 사도 베드로만큼 “고난과 슬픔과 아픔”을 싫어한 사람도 별로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조만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정식으로 반대를 했던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불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마”(마 16:22).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책망하시면서 자기를 따르라는 사랑은 십자가의 “고난과 슬픔과 아픔”을 지고 그리고 죽을 각오를 하고 자기를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 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죽을 것이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마 16:23-25).

베드로는 수 많은 실패와 좌절을 거친 다음, 디비라 바다가에 나타나신 부활의 주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통곡하면서 회개한 다음부터, 앞으로는 팔을 벌리고 자기가 원치 않는 죽음의 길로 가게 될 것

GODIVA

Belgium 1926

NEW 고디바 초콜릿 기프트 컬렉션

큐브 트뤼프 & 골드 디스커버리

소중한 분들께 특별함을 선물하세요

제품문의 080 827 7700 www.godiva.kr

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들은 다음부터, 조금씩 조금씩 십자가의 길로 “고난과 슬픔과 아픔”의 길로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소 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고난과 힘박과 불 시험에 대한 그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생각과 마음과 뜻과 소원을 분명하게 나타내 보였습니다. 베드로는 결국 고난과 시련과 불 시험과 능욕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십자가 고난의 예찬자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 고난을 영광과 연결시키기까지 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 하려고 오는 불 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예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리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옥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므로 하나님과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찌어다”(벧전 4:12-19). 십자가의 “고난과 슬픔과 아픔”을 피하는 대신 십자가의 “고난과 슬픔과 아픔”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달려간 베드로는 결국 사도 바울과 함께 반 기독교적인 로마 세계를 십자가의 복음과 죽음 위에 세우는 초대교회의 가장 보배로운 순교의 제물들이 되었습니다. “고난과 슬픔과 아픔”은 사도 베드로에게 있어서 너무나 유익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보석이 되었습니다.

넷째로 이기풍 목사님과 윤함애 사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기풍 목사님은 본래는 마포 삼열 선교사를 돌로 쳐서 피를 흘리면서 땅에 쓰러지게 한 평양의 강대 두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기풍아”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화제 한 다음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나중에는 목사로 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 지도자였던 길선주 도사가 “길선주야 길선주야”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화제 한 다음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나중에는 목사로 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주도를 떠나려고 한 일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기풍은 길선주와 함께 1907년 9월 평양 장대현교회에서 열린 조선 예수교장로회 목회자에서 마포 삼열 선교사님의 안수를 받고 우리 나라 최초의 일곱 분 목사님들 중의 두 분으로 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기풍 목사님은 노회 셋째 날인 9월 19일 그 당시 이방과 같은 땅인 제주도에 조선교회의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결국 이기풍 목사님과 윤함애 사모님은 제주도 복음화의 선구자가 되었고 전라도 복음화에도 귀중한 공헌을 했습니다.

이기풍 목사님과 윤함애 사모님이 그렇게 귀중한 일을 하게 된 것은 저들의 혼신과 기도와 함께 저들이 당한 “고난과 슬픔과 아픔” 때문이었고 저들이 베푼 “사랑과 희생과 섬김”의 수고 때문이었습니다. 한편에서는 구령이 신을 때려 눕히고 소녀를 구한 이기풍 목사를 존경하며 따르기도 했지만 다른 한 편에서는 이기풍 목사를 계속해서 박해했습니다. 이기풍 목사님은 13년 동안의 제주도 사역을 통해 제주도에서 사탄 마귀의 어두움의 세력을 물어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비주게 했습니다. 30여 개의 교회를 설립했습니다. 이기풍 목님의 성공적인 제주도 사역 뒤에는 윤함애 사모님의 기도와 사랑의 수고가 있었던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는 기도의 여인이고 사랑과 봉사와 희생의 여인입니다. 그녀는 항상 머리맡에 약 상자와 성경책을 두고 자다가도 부르면 벌떡 일어나 제주도민들을 돌봐주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교인들 중 누가 운명하면 항상 달려가서 시체를 목욕시키고 얼굴에 화장을 해 준 다음 손수 만든 수의를 입히고 밤새 유가족을 위로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또한 그늘진 곳에서 읊고 있는 영혼들을 사랑으로 돌보았다고 합니다. 그의 집은 항상 아침에는 거지 때 들로 낮에는 나병 환자들로 가득 찼다고 합니다. 손이 떨어진 나환자에게는 손수 밥을 떠서 먹여주었다고 합니다. 나환자

집으로 데리고 와서 살린 일도 있었습니다. 이기풍 목사님은 너무도 힘이 들고 고통에서 제주도를 떠나려고 한 일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기풍은 길선주와 함께 1907년 9월 평양 장대현교회에서 열린 조선 예수교장로회 목회자에서 마포 삼열 선교사님의 안수를 받고 우리 나라 최초의 일곱 분 목사님들 중의 두 분으로 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기풍 목사님은 노회 셋째 날인 9월 19일 그 당시 이방과 같은 땅인 제주도에 조선교회의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결국 이기풍 목사님과 윤함애 사모님은 제주도 복음화의 선구자가 되었고 전라도 복음화에도 귀중한 공헌을 했습니다.

이기풍 목사의 편지를 잘 받았소이다. 그런데 당신이 내 턱을 때린 흉터가 아직 아물지 않고 있으니 이 흉터가 아물 때까지 더욱 분투하시오.” 이기풍 목사님은 그 편지를 받아 읽고서 그 자리에 쓰러져서 대성통곡하며 화개했다고 합니다. 얼마동안 울다가 일어나니 성령님의 역사로 그의 마음에는 기쁨과 희망과 용기가 넘치게 되었습니다. 이기풍 목사님은 산 속 동굴 안 구령이 신에게 제물로 바쳐진 소녀를 구하기 위해 동굴 속으로 들어가서 구령이를 때려 눕힌 일도 있었습니다. 한

집으로 데리고 와서 살린 일도 있었습니다. 이기풍 목사님은 너무도 힘이 들고 고통에서 제주도를 떠나려고 한 일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기풍은 길선주와 함께 1907년 9월 평양 장대현교회에서 열린 조선 예수교장로회 목회자에서 마포 삼열 선교사님의 안수를 받고 우리 나라 최초의 일곱 분 목사님들 중의 두 분으로 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기풍 목사님은 노회 셋째 날인 9월 19일 그 당시 이방과 같은 땅인 제주도에 조선교회의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결국 이기풍 목사님과 윤함애 사모님은 제주도 복음화의 선구자가 되었고 전라도 복음화에도 귀중한 공헌을 했습니다.

이기풍 목사님과 윤함애 사모님은 제주도 복음화의 선구자가 되었고 전라도 복음화에도 귀중한 공헌을 했습니다.

들이 돌아간 뒤에도 그녀는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였다고 합니다. 이기풍 목사님과 윤함애 사모님은 제주도의 어두운 밤 하늘을 밝힌 두 개의 새벽 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의 사역 안에는 수 많은 “고난과 슬픔과 아픔”과 함께 저들이 베푼 “사랑과 희생과 섬김”의 수고가 가득들 쌓여 있었습니다. “고난과 슬픔과 아픔”은 이기풍 목사님과 윤함애 사모님에게 있어서 너무나 유익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보석이 되었습니다.

다섯째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손양원 목사님만큼 그렇게 진한 “고난과 슬픔과 아픔”을 당한 사람도 별로 없을 것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애양원 나환자들을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는 순수한 희생과 고난을 감수했습니다. 신사참배를 거부한 대가로 피나는 고문과 박해를 당했습니다. 1948년 10월 19일 여수순천 반란 사건 때는 그렇게도 사랑하던 두 아들들 동인이 동신이가 총살당해 죽은 너무나 슬프고도 아픈 비극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두 아들이 총살당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손양원 목사님 내외는 엄청난 충격에 쌓여 비통해 했습니다. 반란 사건이 진압되고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이 잡혔다는 소식을 들은 손양원 목사님은 밤을 새워 통곡하고 기도하고 교회를 나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영혼이 불쌍해서 어찌나, 내 아들들은 죽어서 천국에 갔지만, 안재선은 죽으면 지역 갈 텐데, 저 영혼이 불쌍해서 어찌나.” 결국 손양원 목님의 마음에는 커다란 “사랑의 폭풍”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를 살려야 한다.”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이 체포되어 총살을 당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손양원 목사님은 계엄 사령관에게 땅 동희 양을 보내어 그를 사면할 것을 간청했습니다. 그를 양자로 삼아 교육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안 가겠다고 반항하며 대드는 팔 동희를 설득하여 윤서와 사랑의 메시지를 전달하게 했습니다. 아버지는 듣지 않으려는 딸을 설득했습니다. “동희야 내 말

잘 들어 봐라. 내가 무엇 때문에 5년 동안이나 너희들을 고생시켜면서 감옥 생활을 겪어 냈겠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함이 아니었겠느냐? 제 1,2 계명과 함께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도 똑같은 하나님의 명령인데 내 어찌 이 명령은 순종치 않는단 말이냐. 원수를 사랑하라는 명령에 순종치 않는다면 과거 5년 간의 감옥살이가 모두 헛수고요, 너희를 고생시킨 것도 헛고생만 시킨 꼴이 되고 만다. 그리니 동희야, 가만히 생각해 보아라. 그 학생을 죽여서 우리에게 무슨 이득이 되겠느냐?” 딸은 몇 번이나 반항하며 아버지에게 소리를 지르며 대들었습니다. 흑용서는 할 수 있을지 모르나 아들을 삼는다는 것은 무엇이냐고 애를 쓰며 달려들었습니다. “동희야, 용서만 가지고는 안 된다. 원수를 사랑하라 했으니 사랑하기 위해 아들을 삼으려는 것이다.” 딸은 자기 의지에 반해 아버지의 하나님 절대 신앙에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결국 딸은 아버지의 “용서와 사랑”的 메시지를 국군 심사관에게 그대로 전하므로 처형되기 10여분 전에 원수를 살려냈습니다. 동희양은 취조 군인에게 달려가서 이렇게 아버지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아버지가 두 오빠를 죽인 자를 잡았거든 매 한 대도 때리지 말고, 죽이지도 말라 하셨어요, 그를 구해 아들을 삼겠다고요. 성경말씀에 원수를 사랑하라 했기 때문이에요.” 그는 솔로 쉬지 않고 단숨에 말을 토해 놓고는 책상에 엎드려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동희양의 말이 끝나고, 동희양이 울음을 터뜨리자 방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충격을 받은 듯했습니다. 취조를 하던 군인은 임에 물고 있던 담배가 떨어진 줄도 모르고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으며 “위대하시다” “위대하시다”라고 감탄의 소리를 토해 냈습니다. 안재선까지도 고개를 숙인 채 흐느껴 울고 있었습니다. 손동희 권사는 그 때를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이 광경이야말로 오늘까지 내 눈 앞에 잊히지 않는 역사적인 장면의 한 토막이었다.” “사랑의 원자탄”이 떨어진 장면이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한국교회

가 사랑하고 존경하고 자랑하는 “사랑의 원자탄”이 된 데는 보통 사람이 경험하지 못한 극도의 “고난”과 극도의 “슬픔”과 극도의 “아픔”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손양원 목사님과 정양순 사모님에게 있어서 “고난과 슬픔과 아픔”은 가장 값지고 가장 아름다운 보석이 되었습니다. 그 보석은 하늘에서도 친란하게 빛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고난과 슬픔과 아픔”은 십자가의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가장 유익하고 가장 귀중하고 가장 아름다운 보석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종류의 “고난과 슬픔과 아픔”을 거부하거나 피해가려고 하면 안될 것입니다. 모든 종류의 “고난과 슬픔과 아픔”에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슬픔과 아픔”을 통해서 조금은 겸손해지고 조금은 따뜻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조금은 아주 조금은 우리 주님께서 자신 십자가의 “고난과 슬픔과 아픔”에 참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주 조금은 “고난과 슬픔과 아픔”을 당하는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국을 준비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망극하신 은혜로 여러분들과 제가 “고난과 슬픔과 아픔”을 귀중하게 여기고 사모하고 기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과 괴로움을 우리 몸에 아주 조금이라도 체울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우리들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세상 곳곳에 조금씩 조금씩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1. 한국서부발전은 뻔뻔하게 개인의 실수 운운할 것이 아니라 고인과 고인의 가족에게 무를 끊고 사죄하라.
2. 정부와 기업은 비정규직노동자의 죽음의 흐름을 막을 수 있는 근본 대책으로 비정규직 제도를 철폐하라.
3. 국회는 위험의 외주화를 근절하고 원청 기업에 분명한 책임을 지우는 법안을 조속히 마련하라.

“비정규직 노동자 죽음의 행렬을 멈추어야 합니다”

- 비정규직대책 한국교회연대 성명 -

2016년 5월 28일 오후 5시57분, 구의역에서 김 군은 컵라면과 함께 그의 꿈을 담아놓은 가방을 남긴 채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일 새벽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노동자 김용균씨가 9:10호 발전기 석탄운송설비 컨베이어벨트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어째서 이같은 참사는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까? 계속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죽음의 행렬은 여기서 멈추어야 합니다.

3년 전, 세월호 유가족들과 함께 시민들이 죽음을 밝히 듣는 것은 인간의 존엄

성이 실현된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는 국민적인 염원이었습니다. 이 같은 염원이 모아져 새로운 정부가 탄생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사회안전망 구축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지금, 판박이처럼 달은 죽임을 계속 목도해야하는 국민들은 절망스럽습니다.

자본의 이윤을 실현하기 위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죽음의 환경으로 내몰리

수 있는 강력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피가 외치는 호소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심판하셨습니다. “비정규직대책 한국교회연대”는 고인의 죽음에 애도를 표하며 더 이상은 의미가 있는지를 질문하게 됩니다. 태안화력발전소 고 김용균 청년의 죽음을 계기로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죽음의 행렬을 멈출

www.kogas.or.kr

한국가스공사 KOREA GAS CORPORATION

바르게 딛는 안전의 첫걸음

굴착신고 및 사전협의는 굴착공사의 처음입니다

굴착공사에 의한 배관 손상사고로 대형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굴착현장 안전관리를 위해 굴착신고는 필수입니다.

굴착공사 신고절차

굴착공사계획 신고 ◉ 접수번호 발급 ◉ 가스배관 및 굴착현장 표시 ◉ 굴착공사개시 통보 ◉ 굴착공사 시행

* 굴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굴착공사를 시행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식일에 대한 소고”



장재효 목사의
목회칼럼

8 만일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안식을 주었더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 그림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10 이며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11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험프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히브리서 4:8-11)

『구약의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나님과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에 죄를 정하시어 육신을 죄지 않고 그 영을 죄자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롬8:3-4)』는 안식일의 주인이 되어서 구원받은 성도들과 늘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매일매일 주 안에서 안식하게 하신답니다. 아직까지도 율법에 대하여 사는 유대인이나, 안식일 제도를 고집하는 분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보는 폐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자기가 엿새동안은 자기 일을 힘쓰고 아래 날만 안식하겠다는 고집으로 은혜의 복음, 구원의 진리를 거부하는 것이 되기에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0. 안식일(安息日)에 대한 소고(溯考)

안식일(영-SABBATH/히-바트/헬-삼바론)의 뜻은 편안히 쉬는 날이며 금요일 일몰부터 토요일 일몰까지를 말합니다(느 13:19) 그리고 그 뜻은 ‘멈추다’입니다.

1. 안식일 제도는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A. 안식일의 유래(由來)

창세기 2:1-30¹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 난다 하나님은 그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에 이를 때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 하므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은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죽일지며 무릇 그날에 일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쳐 자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제 칠일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무릇 안식일에 일하는 자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하셨습니다.

C. 안식일을 범하면 죽이라 하심

출애굽기 31:14-15에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성일이 됨이라 하므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은 그 날을 복 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 하셨음이니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십계명을 선포하게 하실 때 출애굽기 20:8-11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다”나 제 칠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동이나 네 여종이나 네 육족이나 네 문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 칠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셨으니 광야교회 이스라엘에게 안식일을 네 째 계명으로 선포하셨습니다.

B. 안식일에는 어떤 일도 해선 안된다

출애굽기 34:21에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제 칠일에는 쉴지니 밭 갈 때에나 거울 때에도 쉴지마” 하셨습니다. 안식일에는 어떤 짐도 옮기거나 집을 짓을 수도 없었습니다.

예레미야 17:21-22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아무 일이든지 하지 말아서 내가 너희 열조에게 명함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안식일에 먹을 음식까지 전날에 준비도록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6:26-27을 보면 “육일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제 칠일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제 칠일에 백성 중 더러가 거두려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하심을 보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안식일을 준수하도록 철저히 훈련시키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5:3을 보면 안식일에는 불도 피울 수 없었습니다.

D.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마가복음 2:27-28에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하셨습니다.

E. 안식일에 병도고치시며 구원 활동을 하심

마태복음 12:10-13에 회당 안에 한편 손 마른 환자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송사하기 위해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나 했을 때 예수께서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 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나 그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환자에게 손을 내밀라 하시니 마른 손이 회복되었다고 했습니다.

F.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일에 대한 예수님의 교

누가복음 14:1-6을 보면 “한 유파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문되 선생님 유파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크니까 예수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이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유파와 선지자와의 강령이니라” 하셨으며, 로마서 8:1-4에서는 “그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유파에 유파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유파에 죄를 정하시어 유파를 거룩하게 하시기 때문에 매일매일 주 안에서 안식하게 하신답니다. 아직까지도 유파에 대하여 사는 유대인이나, 안식일 제도를 고집하는 분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보는 폐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자기가 엿새동안은 자기 일을 힘쓰고 아래 날만 안식하겠다는 고집으로 은혜의 복음, 구원의 진리를 거부하는 것이 되기에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G. 2. 안식일과 예수그리스도

H. A. 인자(예수님)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심

마태복음 12:1-8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고하되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니이다” 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말씀이 사무엘상 21:1-6의 내용을 설명하면서 다윗이 수행원들과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은 사실과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강변하시며 예수님이 성전보다 더 큰 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속한 사람은 성전보다 크신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안식일에 일을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셨습니다.

I. B. 안식일에 병도고치시며 구원 활동을 하심

마태복음 12:10-13에 회당 안에 한편 손 마른 환자가 있었는데 예수님을 송사하기 위해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나 했을 때 예수께서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 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나 그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환자에게 손을 내밀라 하시니 마른 손이 회복되었다고 했습니다.

J. C.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일에 대한 예수님의 교

누가복음 14:1-6을 보면 “한 유파사가 예수께서 문되 선생님 유파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크니까 예수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이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유파와 선지자와의 강령이니라” 하셨으며, 로마서 8:1-4에서는 “그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유파에 유파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유파에 죄를 정하시어 유파를 거룩하게 하시기 때문에 매일매일 주 안에서 안식하게 하신답니다. 아직까지도 유파에 대하여 사는 유대인이나, 안식일 제도를 고집하는 분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보는 폐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자기가 엿새동안은 자기 일을 힘쓰고 아래 날만 안식하겠다는 고집으로 은혜의 복음, 구원의 진리를 거부하는 것이 되기에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K. 2. 안식일과 예수그리스도

L. A. 인자(예수님)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심

마태복음 12:1-8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고하되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니이다” 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말씀이 사무엘상 21:1-6의 내용을 설명하면서 다윗이 수행원들과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은 사실과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강변하시며 예수님이 성전보다 더 큰 이라

M. D.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마가복음 2:27-28에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하셨습니다.

N. 3. 그리스도인은 매일이 주안에서 안식하는 주님의 날로 살게 된다

마태복음 22:35-40에 “한 유파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문되 선생님 유파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크니까 예수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이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유파와 선지자와의 강령이니라” 하셨으며, 로마서 8:1-4에서는 “그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유파에 유파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유파에 죄를 정하시어 유파를 거룩하게 하시기 때문에 매일매일 주 안에서 안식하게 하신답니다. 아직까지도 유파에 대하여 사는 유대인이나, 안식일 제도를 고집하는 분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보는 폐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자기가 엿새동안은 자기 일을 힘쓰고 아래 날만 안식하겠다는 고집으로 은혜의 복음, 구원의 진리를 거부하는 것이 되기에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O. 4.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일에 대한 예수님의 교

누가복음 14:1-6을 보면 “한 유파사가 예수께서 문되 선생님 유파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크니까 예수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이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유파와 선지자와의 강령이니라” 하셨으며, 로마서 8:1-4에서는 “그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유파에 유파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유파에 죄를 정하시어 유파를 거룩하게 하시기 때문에 매일매일 주 안에서 안식하게 하신답니다. 아직까지도 유파에 대하여 사는 유대인이나, 안식일 제도를 고집하는 분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보는 폐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자기가 엿새동안은 자기 일을 힘쓰고 아래 날만 안식하겠다는 고집으로 은혜의 복음, 구원의 진리를 거부하는 것이 되기에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P. 5.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일에 대한 예수님의 교

누가복음 14:1-6을 보면 “한 유파사가 예수께서 문되 선생님 유파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크니까 예수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이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유파와 선지자와의 강령이니라” 하셨으며, 로마서 8:1-4에서는 “그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유파에 유파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유파에 죄를 정하시어 유파를 거룩하게 하시기 때문에 매일매일 주 안에서 안식하게 하신답니다. 아직까지도 유파에 대하여 사는 유대인이나, 안식일 제도를 고집하는 분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보는 폐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자기가 엿새동안은 자기 일을 힘쓰고 아래 날만 안식하겠다는 고집으로 은혜의 복음, 구원의 진리를 거부하는 것이 되기에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Q. 6.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일에 대한 예수님의 교

누가복음 14:1-6을 보면 “한 유파사가 예수께서 문되 선생님 유파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크니까 예수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이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유파와 선지자와의 강령이니라” 하셨으며, 로마서 8:1-4에서는 “그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유파에 유파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유파에 죄를 정하시어 유파를 거룩하게 하시기 때문에 매일매일 주 안에서 안식하게 하신답니다. 아직까지도 유파에 대하여 사는 유대인이나, 안식일 제도를 고집하는 분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보는 폐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자기가 엿새동안은 자기 일을 힘쓰고 아래 날만 안식하겠다는 고집으로 은혜의 복음, 구원의 진리를 거부하는 것이 되기에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R. 7.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일에 대한 예수님의 교

누가복음 14:1-6을 보면 “한 유파사가 예수께서 문되 선생님 유파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크니까 예수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이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유파와 선지자와의 강령이니라” 하셨으며, 로마서 8:1-4에서는 “그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유파에 유파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유파에 죄를 정하시어 유파를 거룩하게 하시기 때문에 매일매일 주 안에서 안식하게 하신답니다. 아직까지도 유파에 대하여 사는 유대인이나, 안식일 제도를 고집하는 분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보는 폐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자기가 엿새동안은 자기 일을 힘쓰고 아래 날만 안식하겠다는 고집으로 은혜의 복음, 구원의 진리를 거부하는 것이 되기에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S. 8.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일에 대한 예수님의 교

누가복음 14:1-6을 보면 “한 유파사가 예수께서 문되 선생님 유파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크니까 예수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이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유파와 선지자와의 강령이니라” 하셨으며, 로마서 8:1-4에서는 “그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유파에 유파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유파에 죄를 정하시어 유파를 거룩하게 하시기 때문에 매일매일 주 안에서 안식하게 하신답니다. 아직까지도 유파에 대하여 사는 유대인이나, 안식일 제도를 고집하는 분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보는 폐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자기가 엿새동안은 자기 일을 힘쓰고 아래 날만 안식하겠다는 고집으로 은혜의 복음, 구원의 진리를 거부하는 것이 되기에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T. 9.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일에 대한 예수님의 교

누가복음 14:1-6을 보면 “한 유파사가 예수께서 문되 선생님 유파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크니까 예수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이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유파와 선지자와의 강령이니라” 하셨으며, 로마서 8:1-4에서는 “그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유파에 유파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유파에 죄를 정하시어 유파를 거룩하게 하시기 때문에 매일매일 주 안에서 안식하게 하신답니다. 아직까지도 유파에 대하여 사는 유대인이나, 안식일 제도를 고집하는 분